

I. 참가자 정보

공 모 명	데이터 기반 런트립 유망지 발굴 및 유형별 지역 특화 관광 정책 제언
성 명	이휘민 ("HelloWorld!")

II. 세부 내용

1. 개요

1-1. 아이디어 개요(요약)

데이터 기반 런트립 유망지 발굴 및 유형별 지역 특화 관광 정책 제언

본 프로젝트는 국민여행조사 및 외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주목받는 관광 트렌드인 런트립(Run+Trip)에 적합한 유망지를 선정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런트립 유형별 관광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건강·자연·체험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민 여가 트렌드에 대응하고, 경기도 내 권역 간 관광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1 주요 설계 요소

1) 지표 설계 및 유망지 클러스터링

국민여행조사와 전국 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런트립 적합도를 수치화한 '런(Run)지수'와 '트립(Trip)지수'를 개발하였다.

- 런(Run)지수 : (보행자전용도로 + 자전거도로) / 전체 도로 면적, 운동용품 지출 비율, 자연 감상 활동, 의약품 사전 구매 비율

- 트립(Trip)지수 : 방문 빈도, 만족도, 재방문의향, 지출 비용

이를 바탕으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런(Run)지수는 높지만 트립(Trip)지수가 낮은 지역들이 경기도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2) 경기도 중심의 런트립 유형 분류

경기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걷기 길 난이도, 러닝크루 수, 마라톤 대회 수, 명소 수, '런트립' 블로그 언급량 등의 외부 데이터로 심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시군구를 다음의 4가지 런트립 성향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은 △챌린지형(기록, 완주 등 성취 중심), △일상탈출형(로컬 탐방 및 가벼운 러닝), △네트워킹형(크루 중심의 교류), △인증샷형(사진·SNS 중심 소비)으로 구분된다.

3) 유형별 지역 특화 관광 활성화 정책 제안

- **챌린지형** (예: 하남, 광주, 양평): 세 지역 연계 마라톤 개최 및 완주 인증 시스템 구축
- **일상탈출형** (예: 파주, 양주, 연천): 테마형 런트립 기획, 지역 특색 체험 연계
- **네트워킹형** (예: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여행자 대상 러닝크루 합류 지원
- **인증샷형** (경기도 내 감성 포토 스팟 지역): 스냅사진 서비스, 포토존 안내 콘텐츠 제작

1.2 기대 효과 및 정책 연계

본 프로젝트는 단순히 관광지를 추천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지역 진단, 런트립 유형화, 정책 제안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통해 지방 관광 활성화와 시군 간 연계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장 가능한 런트립 모델로서 향후 국내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1-2. 문제 정의

2.1 런트립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반 콘텐츠 및 인프라 부족

런트립(Run+Trip)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5년 런트립 관련 SNS 언급량은 2021년 대비 약 598% 증가하였으며, 최근 진행된 스카이스캐너의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인 러너의 55%(응답자 1000명)가 러닝을 목적으로 국내외 여행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런트립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인프라, 콘텐츠,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검증된 러닝 코스 정보가 부족하고, 기존에는 러닝 앱, 개인 블로그, SNS 후기 등 비공식적인 채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한, 러너를 위한 숙박·편의시설·관광자원 간의 연계성 역시 미흡하여, 런트립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 주도의 통합적 정보 제공과 서비스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2-2. 지역 간 연계 부족

최근 관광객의 이동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면서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대응

하는 것에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과거에는 단일 목적지를 중심으로 이동하던 관광 패턴이 최근에는 교통망 발달과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인접 지역을 함께 방문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 및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차원적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여전히 개별 지역 단위로 관광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어, 관광 수요의 흐름과 지역 간 연계가 단절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러닝 관광과 같은 광역적 동선을 요구하는 관광 유형에서는 더욱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1-3. 제안 배경 및 필요성

3.1 제안 배경 : 데이터 기반 문제점 도출

1) 잠재적 런트립 유망지 존재

최근 러닝 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런트립(Run + Trip)’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전국 단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런트립 지수’는 높지만 ‘트립 지수’가 낮은, 즉 러닝이나 걷기 등 야외 여가 활동 여건은 우수하나 관광 만족도나 체류 유도에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39개의 런트립 유망지 중 경기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28개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한다. 이 분석 결과는 경기도가 런트립 실험 및 정책 모델 구축의 거점 지역으로 적합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경기도 내 시군구 간 유사성 존재

경기도 내 시군구들은 러닝 인프라, 러닝크루 활동, 마라톤 개최 수, 관광지 밀집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지역 간 연계 전략이나 협력 기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실제로 2025년 7월에 입법 예고된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지역 간 연계 부족과 관광자원 활용의 한계”가 주요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본 분석을 통해 수원·용인·성남·화성 등은 러닝크루 기반의 **네트워킹형 연계**, 하남·양평·광주 등은 자연환경과 걷기 코스를 활용한 **챌린지형 연계**가 가능한 지역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이는 시군구 간 특성에 기반한 연계형 정책 설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3.2 아이디어의 필요성 : 데이터 기반 지역 연계 정책의 도입 필요

1. 경기도는 압도적 유망지를 보유한 실험 적합 지역

경기도는 전체 런트립 유망지의 72%가 밀집된 지역으로, 정책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모델을 구축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총 31개 시군구 중 28개가 유망지로 분류된 만큼, 지역 간 연계를 통한 파급 효과와 실효성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2. 데이터 기반 유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설계 가능

경기도 시군구는 동일한 지표 분석을 통해 러닝·관광 관련 특성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챌린지형’, ‘일상탈출형’, ‘네트워킹형’, ‘인증샷형’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 유형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자원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정책 집행 모델을 제시한다.

3.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권역 단위 시너지 창출 기대

인접 지역 간 특성 연계를 활용하면, 마라톤·걷기길·러닝크루 등과 관련된 크로스 이벤트 및 공동 기획이 가능하다. 이는 단일 시군구 중심의 관광 정책을 넘어, 권역 단위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체류 시간 증가 및 관광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4. 경기도 기반 런트립 정책의 전국 확산 가능성

경기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실증적 정책 실험은 향후 타 시도 및 시군구로 확산 가능한 정량적 정책 설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런트립’이라는 신규 테마는 지역별 관광 자원의 재발견, 비수기 수요 창출 등 중장기적인 관광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1-4. 활용 공공데이터

[공공 데이터]

1. ‘국민여행조사 2024년 국내여행’ 데이터

-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링크: <https://know.tour.go.kr/stat/nRawDataDownloadDis19Re.do>
- 사용한 주요 변수:
 - D_TRA1_CASE : B_여행1차_여행유형
 - D_TRA1_ONE_COST : B_여행1차_1인지출비용
 - D_TRA1_1_SPOT : B_여행1차_1번째방문지_방문 지역
 - A4_1 여행지에서의 활동_자연 및 풍경 감상
 - A6 : 여행 동반자 수
 - A6B_1 ~ A6B_12 : 여행 동반자 유형
 - NA7_6 : 여행전지출_의약품_1인지출비용
 - PA8D_2 : 호프집, 바 등_비용에 포함된 인원수
 - A8SF_3 : 기타제조업제품 비중_운동용품
 - A9 : 전반적인 만족도
 - A10 : 재방문 의향

1-5. 분석 방법

5.1 데이터 분석 시기 결정

최근 '런트립(RUNTRIP)'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음을 반영하여, 본 분석에서는 가장 최신 자료인 **2024년 국민여행조사 국내여행**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최신 수요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5.2 런트립 유망지 선정

5.2.1 데이터 활용 목적과 사용 방법

- **[2024년 국민여행조사 국내여행] 데이터 활용** (1-4. 1번 데이터)
 - 목적: 지역별로 런트립과 관련된 칼럼을 분석하여 스코어 제작에 필요한 지표 생성
 - 방법:
 1. 전처리
 1. 여행 다녀온 사람 선정
 1. ID 칼럼 제외 모든 변수 값이 NaN인 행 삭제
 2. 'D_TRA1_CASE(여행1차_여행유형)'이 '여행'인 경우만 남기
 2. 'A4_1(여행지에서의 활동_자연 및 풍경 감상)' 변수 이진 분류
 3. 소비 관련 변수 이진 분류 (NA7_6 (여행전지출_의약품_1인지출비용), PA8D_2(호프집, 바 등_비용에 포함된 인원수), A8SF_3(기타제조업제품 비중_운동용품))
 2. 지역 기준 데이터 생성
 1. 'D_TRA1_1_SPOT(B_여행1차_1번째방문지_방문 지역)'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화
 2. 이진 분류된 수치형 변수는 평균(비율)으로 해석
- **[교통시설_도로(사용 및 형태별)] 데이터 활용** (1-4. 2번 데이터)
 - 목적: '러닝 가능 도로 면적 비율' 변수를 제작하여 스코어 제작에 필요한 지표 생성
 - 방법: $\text{'러닝_도로_면적비율(\%)'} = (\text{보행자전용도로_면적 (m}^2\text{)} + \text{보행자우선도로_면적 (m}^2\text{)} + \text{자전거전용도로_면적 (m}^2\text{)}) / \text{계_면적 (m}^2\text{)} * 100$

5.2.2 런트립 유망지 선정 (K-Means 클러스터링 기반)

먼저 지역별 'RUNTRIP 스코어'와 'TRIP 스코어'를 산출하고, 이들의 분포를 기준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유사한 특성의 지역을 군집화하였다.

- **RUNTRIP 스코어**는 러닝 친화성과 런트립 적합성으로 구성된다.
 - 러닝 친화성은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면적 비율**로 측정되며(1-4. 2번 데이터 활용), 안전하고 쾌적한 러닝 환경을 반영한다.
 - 런트립 적합성은 **운동용품 지출 비율(A8SF_3), 의약품 지출 비율(NA7_6), 자연 및 풍경감상 활동 비중(A4_1)**의 합으로 산출되며(1-4. 1번 데이터 활용), 야외 활동 기반의

여행 수요 가능성을 나타낸다.

- **TRIP 스코어**는 기존 관광 수요의 양과 질을 평가하기 위해 **방문 빈도(N_VISITS)**, **여행 만족도(A9)**, **재방문의향(A10)**, **1인 지출비용(D_TRA1_ONE_COST)**을 종합하여(1-4. 1번 데이터 활용) 구성하였다.

이 두 지표를 기반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실시한 결과, Elbow Method를 통해 **4개의 최적 군집**을 도출하였다. 각 클러스터는 RUNTRIP 스코어와 TRIP 스코어의 조합에 따라 ‘MH’, ‘HL’, ‘ML’, ‘LL’ 유형으로 분류되었다(H: high, M: middle, L: low). 특히 HL(런트리프 수요는 높으나 관광 수요는 낮은) 지역은 **향후 런트리프 중심 관광전략이 필요한 잠재 유망지**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 HL 클러스터에 속한 지역은 전국 시군구 229개 중 총 39개였으며, 이 중 **28개(약 72%)가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어, 경기도가 런트리프 기반 관광 정책의 핵심 실증 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런트리프’ 키워드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본문 크롤링 분석 결과, 런트리프 관련 언급량이 가장 높은 지역 역시 **경기도**로 나타나, 데이터 기반 수요와 관심도의 측면에서도 경기도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5.3 경기도 시군구 런트리프 유형 세분화

경기도는 런트리프 관련 언급량이 높은 지역으로, 보다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유형별 런트리퍼를 유치하기 위해 유리한 경기도 시군구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Folium** 패키지를 활용하여 시각화를 진행하였다.

5.3.1 데이터 활용 목적 및 시각화 방법

- **[경기 걷기 여행길 난이도]**
 - 목적: 지역별 걷기 난이도를 파악하여 난이도에 따라 유형별 런트리퍼 적합성 판단
 - 방법: ‘경기 여행길 현황’ 데이터(1-4. 3번 데이터)의 ‘난이도’ 정보를 활용하여 시군구 평균 걷기 난이도 시각화
- **[러닝크루 분포]**
 - 목적: 러닝크루가 집중된 지역을 파악하여 네트워킹 중심 활동 적합 여부 확인
 - 방법: ‘런하우스(RUNHOUSE)’ 웹페이지(1-4. 5번 웹사이트)에 등록된 러닝크루의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군구별 러닝크루 개수 시각화
- **[마라톤 대회 개최 현황]**
 - 목적: 마라톤이 자주 열리는 지역을 파악하여 챌린지형 런트리퍼 대상 적합성 확인
 - 방법: ‘마라톤온라인’ 웹페이지(1-4. 6번 웹사이트)에 등록된 대회 정보를 활용해 개최 횟수 기반 시각화
- **[경기도 명소 분포]**
 - 목적: 관광명소 밀집도를 파악하여 관광 중심 수요 유도 가능성 분석
 - 방법: ‘경기도 명소 현황’ 데이터(1-4. 4번 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명소 위치를 지도에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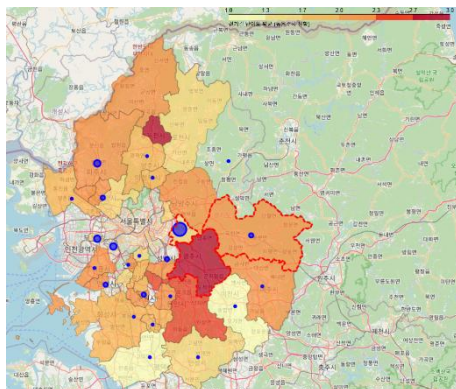
- **[SNS 언급량 분석 - '런트립' 키워드 크롤링]**

- 목적: 런트립에 대한 관심도 및 지역별 온라인 언급량 파악
- 방법: 네이버 블로그 본문 및 제목에서 '런트립' 키워드 언급 횟수를 분석, 지역별 언급량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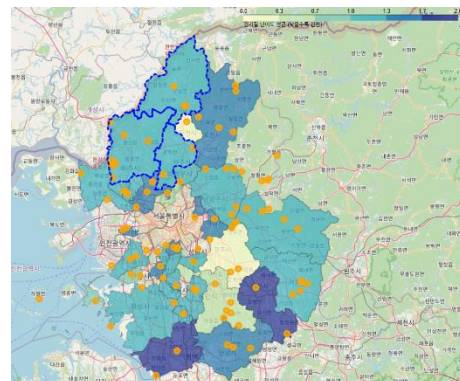
5.3.2 지역별 유형 분류

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시군구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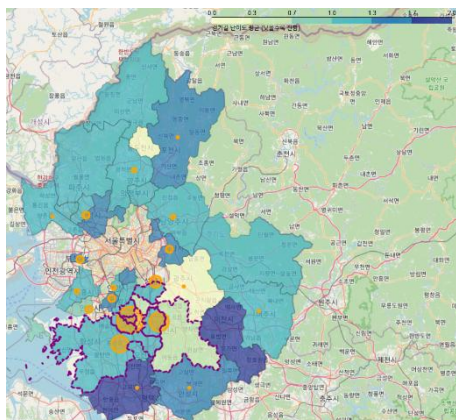
- **챌린지형 [그림1]:** 마라톤 대회 개최 수가 많고, 난이도 높은 걷기 코스가 있는 지역 (예: 하남시, 양평군, 여주시)
- **일상탈출형 [그림2]:**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명소가 풍부하여 관광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 (예: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 **네트워킹형 [그림3]:** 러닝크루 밀집도가 높고, 도심 내 네트워크 형성 용이한 지역 (예: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 **인증샷형 [그림4]:** SNS 언급량이 많고, 난이도 낮은 코스가 있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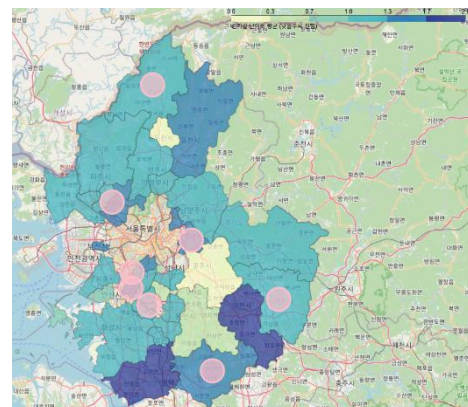
[그림1] 챌린지형 시각화 결과



[그림2] 일상탈출형 시각화 결과



[그림3] 네트워킹형 시각화 결과



[그림4] 인증샷형 시각화 결과

이와 같은 유형별 분류는 향후 지역 맞춤형 런트립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6. 실현 가능성 및 차별점

6.1 실현 가능성

6.1.1 런트립 유형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SNS 데이터를 기반으로, 런트립을 즐기는 사람들, 일명 ‘런트리 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챌린지형(61%)**: 기록 경신, 메달 수집 등 뚜렷한 목표 지향
- **일상탈출형(18%)**: 가볍게 달리며 로컬을 경험하는 비밀상 여행
- **네트워킹형(12%)**: 커뮤니티 기반 교류, 크루 활동 중심
- **인증샷형(7%)**: 감성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러닝

6.1.2 유형별 지역 특화 관광 활성화 전략 제안

경기도가 수립한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22~2026)」(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 비전 및 추진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된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각 유형별 런트립 모델의 전략 방향과 실행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1) 챌린지형 (예: 하남, 광주, 양평)

- 정책 방향성: 고난이도 코스를 기반으로 한 개인 기록 경신 중심
- 전략 제안: **‘한강-남한강 종주 마라톤 대회’를 개최 및 완주 인증 시스템을 구축**
- 세부사항: 도시형 출발지인 하남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시작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광주 남한산성과 양평 두물머리, 용문산 등을 거치는 상징적인 코스를 운영한다. 완주자에게는 ‘한강-남한강 종주 인증서’를 발급해 성취감을 제공한다.
- 기대 효과: 수도권 인접성과 지역 간 협업 기반이 강점이며, 매년 개최 시 ‘경기도 대표 마라톤’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과 상징성을 갖는다.
- 실현 가능성: 보고서에서는 여주와 이천 지역의 남한강 수상 및 수변 관광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제안되어 있다. 기존의 수변 관광 자원인 용문산, 두물머리,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연계하여 마라톤 코스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에서 수변 및 강변 관광 인프라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코스 확보와 안전 관리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일상탈출형 (예: 파주, 양주, 연천)

- 정책 방향성: 단거리이면서 지역 정체성이 뚜렷한 코스 중심
- 전략 제안: **지역 특색을 살린 테마형 코스 기획**
 - 벤치마킹 사례: DMZ런, 무도권, GPS 아트런
- 세부사항: 파주, 양주, 연천은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비밀상적인 분위기를 지닌 지역으로, 테마형

런트립에 적합하다. 파주는 평화 관광지와 예술마을을 잇는 코스로 DMZ 해설이나 예술 체험을 결합할 수 있다. 양주는 역사 유적과 전통시장을 연계해 지역 음식 체험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연천은 생태·안보 자원을 활용해 몰입감 있는 이색 러닝 코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GPS 미션 러닝이나 가이드 크루 방식으로 운영하고, 러닝 후 지역 체험과 소비 활동을 연계할 수 있다.

- 기대효과: 관광 목적성을 강화하고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질적 만족도를 높이며, 지역 경제와의 실질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주민-여행객 간 교류 촉진이 기대된다.
- 실현 가능성: DMZ 생태탐방로와 평화·생태 관광 활성화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의 평화누리길과 테마 노선을 활용할 경우 안전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형 및 GPS 미션형 런트립 콘텐츠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네트워킹형 (예: 수원, 용인, 성남, 화성)

- 정책 방향성: 공동체 기반 달리기 지원 중심
- 전략제안: **여행객 대상 러닝크루 합류 지원**
- 세부사항: '랜선 크루 매칭' 시스템을 도입해 대회 전 온라인에서 러닝크루를 연결하고, 대회 당일 함께 달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수원, 용인 등의 지자체는 숙박비 및 교통비 일부를 지원한다. 더불어 전용 앱을 통해 지역별 주간 러닝크루 활동 정보를 공개하고 여행객의 크루 합류를 독려하며, 러닝크루에는 활동비와 기념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기대효과: 단순 행사에서 벗어나 여행 동기를 부여하며 관광객 유입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재방문 유도 효과를 낸다.
- 실현 가능성: 보고서에는 '관민 협업 체험관광 콘텐츠 구축'과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 육성' 등 지역 커뮤니티 기반 관광 활성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커뮤니티 기반 관광 정책과 연계하여 러닝크루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디지털과 커뮤니티 기반 관광 정책 간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4) 인증샷형 (경기도 내 감성 포토 스팟 지역)

- 정책 방향성: 저난이도 코스와 포토 스팟 위주의 코스
- 전략 제안: **러닝 스냅 사진 촬영 서비스**
- 세부사항: 전문 사진작가가 포토존에 배치되어 스냅 촬영을 지원하고, SNS 공유 이벤트 운영한다.
- 기대효과: MZ세대를 중심으로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실현 가능성: 경기도는 'SNS 사진 찍기 좋은 스팟 Top 7'과 '360° VR 경기도 랜선여행' 등 디지털 마케팅과 포토 스팟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

6.2 차별점

본 아이디어는 단순한 관광지 추천이나 러닝 이벤트 기획을 넘어, '러닝'이라는 활동성과 '관광'이라는 체류성을 결합한 융합형 지역 활성화 모델을 제안한다. 특히 데이터 기반 분석과 행동 유형화,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정책적 실효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

1. '런트립'이라는 새로운 체험형 관광 형식 제시

‘런트립’은 기존 관광이 관람이나 방문 등 정적인 소비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신체 활동과 지역 탐방을 결합한 경험 주도형 관광 형식을 제시한다.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뒀 수 있는 코스’가 여행의 목적이 되며, 이는 방문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인근 지역의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특히 도시, 자연, 문화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중단거리 러닝 코스를 통해,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소도시와 소규모 관광지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뚜렷하다.

2. 행동 기반 유형화와 데이터 기반 접근의 융합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관광지 추천을 넘어, 수요자의 행동 특성과 데이터를 융합해 수요자 맞춤형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어디를 갈 것인가’가 아닌 ‘누가, 왜, 그 지역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고난도 코스 완주를 중시하는 ‘챌린지형’, SNS 인증을 중시하는 ‘인증샷형’, 일상 회복을 추구하는 ‘일상탈출형’ 등 유형별 수요자의 성향에 맞춘 러닝 코스와 정책 콘텐츠를 구성한다. 이 과정은 단순 설문이나 통계 수치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여행조사, 관광공공데이터, 공간정보(GIS), SNS 텍스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한다. 특히 러닝크루의 활동 반경, 후기 텍스트 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 수요자 기반의 정책 기획이 가능하며, 이는 기획-시행-홍보의 전 단계에 있어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반영된 선도적 관광 정책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3. 시·군 간 연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 구조

이 모델은 특정 지자체에 한정된 관광 코스가 아니라, 인접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형 관광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예를 들어, 하남-광주-양평으로 이어지는 챌린지형 러닝 코스는 도시적 편의성, 자연경관, 역사문화 자원을 아우르며, 각 지역의 고유한 강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는다. 이러한 연계는 단순한 경로 연결을 넘어, 광역권 단위의 관광 흐름 형성과 지역 간 자원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로 발전할 수 있으며,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2-1. 공통 정책 제언

1.1 공통 정책 제언

1) 앱 개발

개인별 러닝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런트립 장소를 추천하는 전용 앱 개발이 필요하다. 이 앱은 단순한 러닝 정보 제공을 넘어서 실시간 러닝크루 활동 정보, 참여 신청 기능은 물론, 인근 관광지·맛집·대중교통 정보와 연계되어 사용자 편의성과 지역 정보 접근성을 동시에 높인다.

2) 러닝 코스 추천 정책

러너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코스 정보를 반영한 러닝 코스 추천 정책이 필요하다. ‘재미있고 즐거워야 달릴 수 있다(이재석 외, 2024)’ 연구에 따르면, 많은 러너들이 적절한 러닝 코스 기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사도, 도로 구조, 그늘 및 휴게소 유무, 교통 상황, 식사·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를 종합 반영한 맞춤형 러닝 코스 콘텐츠의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1.2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은 지역 특화형 러닝 코스의 발굴과 브랜딩을 촉진하며, 단순한 운동을 넘어선 ‘체험형 관광’으로서의 런트립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러닝 경험과 지역 관광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